

뉴스 > 사회

겨울가뭄 '우려'...농어촌공사 "월동작물 농가에 급수지원"

SBS송인호 기자

입력 : 2022.02.22 11:52 | 수정 : 2022.02.22 11:52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겨울 가뭄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물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마늘과 양파 등 월동작물에 선제적 급수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2개월 동안 전국 강수량은 평년대비 9.8% 수준에 불과한데다, 전남과 경북, 경남의 경우 누적강수량이 현저히 부족해 발작물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용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이에 따라 양수장 가동을 위한 전기연결과 시설점검 등을 신속하게 시행해 우선 공급이 필요한 구역에 급수를 시작한 뒤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와 협조해 급수구역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22일) 기준, 농어촌공사가 관리 중인 전국 3,438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82%로 충분한 영농급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경북도 제공, 연합뉴스)

SBS송인호 기자

입력 : 2022.02.22 11:52 | 수정 : 2022.02.22 11:52

© SBS & SBS Digital News Lab all rights reserved.